

김기태 감독 “호랑이 야구를 찾아라”



KIA 야수들이 일본 미야자키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주루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장 외야에는 ‘나는 오늘 팀과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미야자키 캠프를 가다

‘호랑이 조련사’로 변신한 KIA 김기태 감독이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KIA의 마무리 캠프가 꾸러진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 외야 펜스 양 옆에는 ‘나는 오늘 팀과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기태 감독이 직접 작성한 문구다. 이는 선수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주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진짜 야구’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야구를 하라. 100%로 하라”며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줬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 대해 선수들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러닝과 웨이트, 타격 훈련까지 순간

순간 강도 높게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타격 훈련이 이뤄진 분구장은 물론 투수들이 몸을 만들고 있던 실내 연습장 곳곳에서는 비명소리가 났다. 하지만 선수들은 끄덕 않는 소리를 내면서도 마지막까지 정해진 훈련량을 소화하느라 굳은 땀을 흘렸다. ‘힘들다 힘들다’고 내뱉으면서도 멈출 수 없는 움직임.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은 눈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버텨내고 있다. 야수진 고참인 김다원은 “감독님께서 야구를 100%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훈련이 힘들다. 하지만 100%가 아니라 120%로 하고 있다”고 웃었다. 김 감독의 ‘스스로 야구’ 주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러닝·웨이트·타격 등 강도 높은 훈련 “만족 할 때까지”... 스스로 야구 주문 선수들, 답 찾아가며 팀 분위기 쇄신



3루 덕아웃 옆에는 계시판이 마련되어 있다. 매일 야수조와 투수조로 나눠 세세한 훈련 로테이션이 공지되는 공간인데, 이곳에 ‘자아발전’이라는 스케줄표가 하나 추가됐다. 정해진 훈련 스케줄이 끝나면 선수들은 자아발전 시간을 갖는다. 하루 훈련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고민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할 것인지 적는 표다. 이날 최희섭은 ‘스윙’이 부족했다며 자아발전 시간을 가졌다. 악소리가 나는 훈련 시간이지만 코칭스태프는 “더 크게 악을 지르면서 해라. 목이 아직 덜 트였다”고 큰 목소리를 내며 선수들을 독려했다. 힘들지만 재미있게,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 캠프를 뜨겁게 움직이게 하는 김 감독의 비법이다. 이대진 투수 코치는 “끌려가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부족한 것을 채우는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그날 그날 훈련이 잘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잘 됐을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만 짧고 굵게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캠프 분위기를 전했다. 체력과 싸움을 주문한 김 감독이지만 얼마 전 선수들에게 깜짝 휴식을 선물했다. 선수들에게는 호흡을 가다듬는 천금 같은 휴식이자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을 동시에 준 ‘당근과 채찍’이었다. 김다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휴식이 주어져서 깜짝 놀랐다. 편하게 쉬기는 했지만 그만큼 더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진 김 감독, 기회 앞에서 선수들이 그 질문에 답을 써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FA 100억 잭팟 터지나

19명 신청 프로야구 역대 최대...구단별 3명 영입 가능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2015 FA 승인 선수를 공시했다. 총 19명이 FA 신청을 하고, KBO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종전 최대 FA 신청자 17명(2012년)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신청자다. ‘19’란 숫자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야구규약은 ‘FA 신청자가 1~9명일 경우 구단별로 외부 FA 영입 1명, 10~18명이면 2명, 19~27명이면 3명, 28명이 이상이면 4명을 영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상 최초로 FA 시장에서 구단별로 외부 FA 3명을 영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FA 자격을 얻은 21명 중 입대를 앞둔 두산 베어스 내야수 이원석(28)과 SK 와이번스 내야수 박진만(38) 등 두 명이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

사상 최초로 3명의 외부 FA를 영입하는 팀이 나온다면, 내년 시즌 프로야구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번 FA 시장에는 팀 전력 상승을 이끌만한 ‘양질의 FA 선수’가 많다. SK 와이번스 내야수 최정(27)은 강민호(롯데)의 역대 최고 금액(4년 75억원) 경신은 물론 최초의 ‘100억원대 계약’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삼성 라이온즈 오른손 에이스 윤성환(33), 불펜의 핵 안지민(31)은 각각 FA 투수 최고액(정원삼 4년 60억원)과 불펜 투수 최고액(정대현 4년 36억원)을 넘어선 초대형 계약을 예고했다. 롯데 자이언츠 왼손 선발 장원준(29)도 이번 FA 시장에서 주목받는 투수다. 공수를 겸비한 외야수 김강민(SK), 한때 국내 최고 오른손 투수라는 평가를 받은 송은범(KIA 타이거즈)도 FA 시장을 달굴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연합뉴스



FA 최대어로 꼽히는 SK 최정.

33개 대회 총상금 677억원

2015 LPGA 투어 일정 발표...개막전은 1월 28일

2015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정이 발표됐다. LPGA 투어 사무국은 19일(한국시간) 올해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2015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2015시즌 개막전은 1월28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신설 대회 코츠 챔피언십이고 11월22일 역시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에서 열리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올해와 비교해 대회가 1개 늘어나 총 33개 대회가 열리고 총상금 역시 올해 5755만 달러에서 6160만 달러(약 677억원)로 증가했다. 메이저 대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대회가

열린다. 이 가운데 올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시즌 첫 메이저 대회는 2015년에는 전일본공수(ANA)가 새로운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대회 이름이 ANA 인스퍼레이션으로 변경됐다. 또 올해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으로 열린 대회는 KPMG 여자PGA 챔피언십으로 명칭이 달라졌다. 국내에서 열리는 하나·외환 챔피언십은 10월15일 개막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인비